

보험사, 혁신상품 경쟁 '배타적사용권' 봇물

올해 배타적사용권 총 18건 획득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부담 높아
상반기 수익·건전성 관리 등 집중
안정화 후 하반기에만 12건 달해

최근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 올해 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상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독점 판매를 위한 경쟁 태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근까지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18건으로 생보·손보 각각 6건과 12건이다. 상반기 6건(생보 3건, 손보 3건)에 불과했던 배타적사용권 획득 실적을 하반기에 크게 늘렸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판매 특허권이다. 생보·손보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 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보험사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상품을 독점적



올해 초 IFRS17 도입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보험사들이 하반기 보험 상품 독점 판매를 위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도이미지

으로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생명·손해보험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2020년 26건, 2021년 27건, 2022년 32건으로 증가해 왔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생보·손보업계 가운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업계는 저조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대해 올해 초 IFRS17 도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새로운 상품 출시 대신 IFRS 17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등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기존 계약에 더 신경써야하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중요해졌다"며 "올해는 기존 계약 유지 관리에 집중하느라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기 부담스러워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증가하면서 독점 판매 경쟁이 본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증가하는 추세다. 벌써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들은 총 12건(생보 3건, 손보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라이프생명에는 지난 10월 'KB 최선의선택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어 삼성화재도 지난 7일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는 IFRS17 적용 후 보험사들이 점차 안정화를 이루면서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그 이상으로 상품의 독점적 판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IFRS17 안정화 후 보험사들은 판매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하나카드

18일 0시~18시까지 일부 서비스 일시중단

하나카드가 시스템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

◆ 18일 밤 12시~오후 6시 서비스 일시중단

하나카드는 시스템 보강에 따라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 및 일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 밤 12시부터 3시간 동안 결제 승인 시스템을 중단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체크·선불·기프트카드 이용 및 하나머니 앱 사용을 제한한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실물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트래블로그의 경우 신용결제 방식은 중단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외화 하나머니 결제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는 밤 12시부터 6시간 중단한다. 다만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현금서비스 출금은 낮 12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LG트윈스 우승 기념 한정판 특별카드 발급

신한카드가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 추첨 통해 '메탈 플레이트' 제공

신한카드는 LG트윈스를 응원해준 팬들을 위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승 엠블럼이 각인된 한정판 'LG트윈스 신한카드'를 발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각각 2900명에게 선착순 제공한다.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G트윈스카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8명에게 'LG트윈스 3종 메탈카드'를 선물한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내달 15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공지한다.

LG전자 제휴카드회원을 위한 행사도 단행한다. 오는 17~20일까지 '뉴 LG전자베스트샵 플러스 카드'로 LG베스트샵에서 1000만원 이상 결제고객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KB국민카드

해외여행객·직구족 최대 25만 포인트리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객 및 직구족을 위한 비용 절감 행사에 나선다.

◆ 해외여행·직구 수수료 할인 선택

KB국민카드는 해외 결제 수요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비자,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이용수수료를 포인트로 환급한다. KB페이 앱에서 응모하고 11월 말까지 해외이용금액이 합산 30만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최대 25만 포인트리를 적립할 수 있다.

해외 사용 빈도가 낮은 사용자가 해외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모바일 상품권(3만원)을 선물한다. 단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결제 내역이 없어야 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예금 만기 고객 잡아라... 지방은행, 수신경쟁 본격화

은행들, 우대금리 앞세워 고객유치
지방은행, 저축은행 견줄 금리 적용
전북銀 최대 4.37% 1금융권 '최고'

은행들이 수신(예금·적금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맡는 영업 행위)경쟁에 나서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4%대를 웃돌고 있다. 지방은행은 '우대금리'를 앞세워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4%대 고금리 상품을 통해 고객 재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저축은행 이자율에 견줄 만한 최고금리 4.2% 전후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신 경쟁에 적극적이다.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제1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38개 상품 중 최고금리가 4% 이상인 상품은 19개(50%)였다.

은행 형태별로는 지방은행이 9개의 4%대 예금 상품을 판매해 가장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수은행(NH농협·Sh수협) 상품이 4개로 뒤를 이었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상품은 3개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과 SC제일은행도 각각 2개와 1개의 4%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리 조건에서는 은행 형태별로 차이가 났다.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WON플러스 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신한은행 '솔직한 정기예금' 등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다른 우대금리 조건 없이 6개월~24개월 만기에 최고금

리를 제공한다. 세 상품 모두 최고금리는 4.05%로 동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상품도 조건 없이 만기 구간에 따라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은 6개월~12개월 만기에,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2개월~36개월 만기에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두 상품 모두 최고금리는 4.00%로 동일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을 통해 장기간 거래·반복 거래를 유도하며 '충성고객' 확보에 나섰다.

전북은행이 판매하는 '전북은행 1·2·3예금'은 기본금리 4.07%에 더해 12개월 만기 후 재가입 시마다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최대 3회까지 중복 적용한다. 최고금리는 4.37%로 제1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 3분기 당기순익 132억... 전년비 48% 뚝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
수신 잔액은 17.2조... 28% ↑

케이뱅크가 3분기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케이뱅크는 14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년전(256억원)과 비교해 48.4% 감소한 수준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다만 중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며 연체율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린 것이 순이익이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뱅크가 3분기 적립한 충



당금은 약 630억원으로 전년 동기(321억원) 대비 96%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은 17조24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생활통장과 코드K정기예금 등 금리경쟁력을 앞세운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가입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증축형 리모델링 '특화평면' 리뉴얼

대우건설이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넘은 단지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리모델링사업에 도입할 4가지 타입의 특화평면을 자체 개발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리모델링 상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 작년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했다.

/김대현 기자 kdh@